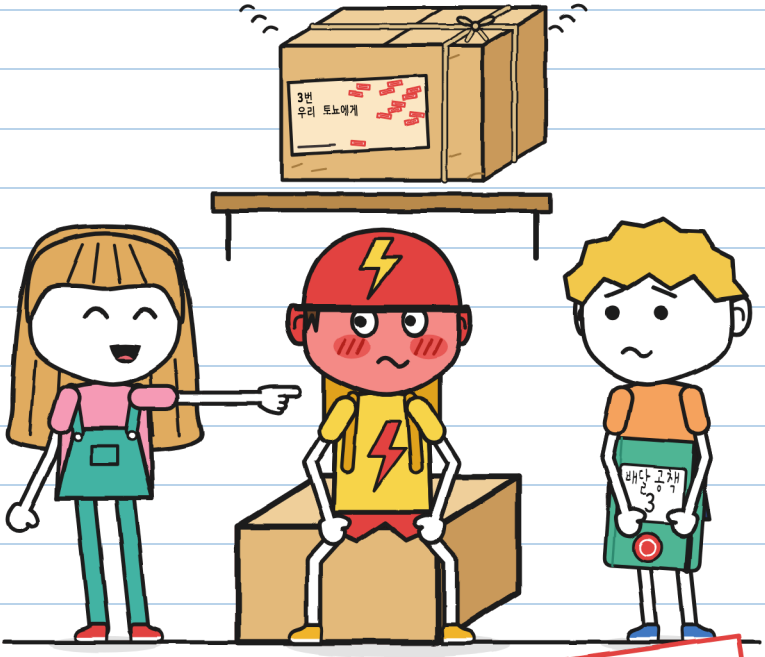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3

반송 부탁해요

LinguAula



(구니의 공책)

사이즈 M
중급 · 9+

불가능 배달 · 3
반송 부탁해요

글과 그림: LinguAula

사이즈 M · 중급 · 9+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세 번째 책. 앞선 책: '이 택배는 문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다가 다친 배달원은 없다. 얼굴이 빨개진 사람은 있다. —J.



그리고 내가 먼저 읽는다. —J.

이걸 찾았다면 돌려줘. 부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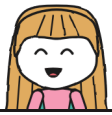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진짜 택배는 날아서 돌아오지 않아. 진짜 자전거를 탈 때는 76쪽이 시키는 대로 해. —J.

등장인물



구니. 토요일마다배달하는 아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그린다. 이 공책의 주인이다.



훌리타. 초록색으로 쓰고 J. 라고 서명한다. 도울 방법은 늘 안다. 그게 문제다.



토뇨. 번개배송 배달원. 자전거로 배달한다.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한 군데씩 빨개진다.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녀 모자를 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조이. 번개배송 배달원. 제일 빠르다. 별명을 붙여 준다.



브루노. 번개배송 배달원. 펑크가 한 번 났다. 2년 전에.



3번 택배.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 라벨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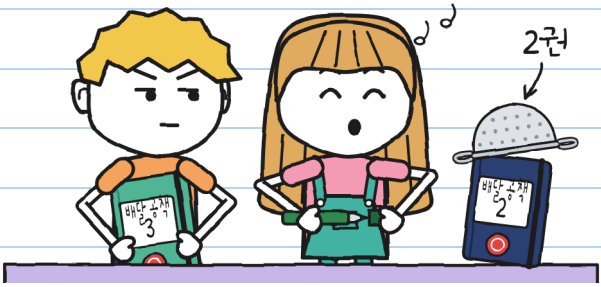


R.은 아무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를 보낸다. 아무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배달 공책 3
주인 : 구니

비밀.

비밀이라는 건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해. —J.



공책 2권은 폭풍 한 번에 다 썼다. 이건 초록색이고 가게 도장도 있다. 내가 먼저 쓰려고 했는데, 먼저 쓴 건 훌리타다.

널 도우려고 내가 먼저 썼어. 천만에.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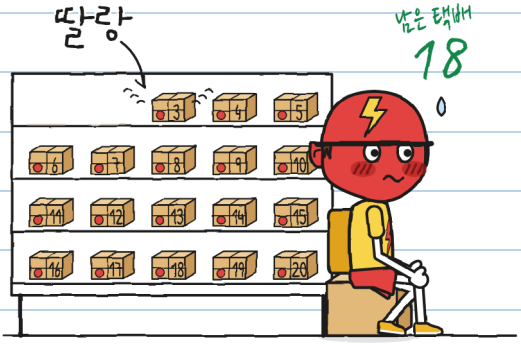
나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았다. 훌리타한테는 상관없다.

제1장

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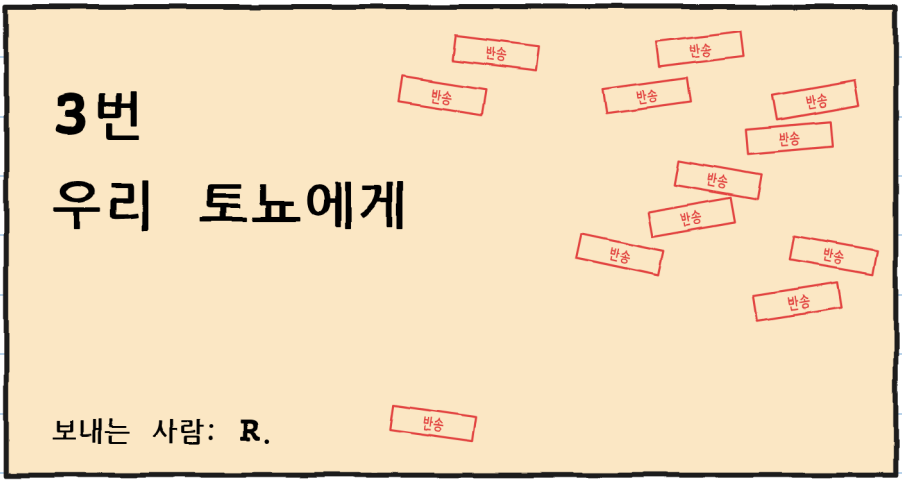
마라아줌마 가게에는 아무도 배달하지 못한 택배가 있다.
선반 위에 놓여 있다. 처음에는 스무 개였다. 훌리타와
나는 두 개를 배달했다. 용의 알 하나와, 달리는
씨앗들이다. 이제 열여덟 개가 남았다.

폭풍이 친 날 밤, 우리가 막 집에 가려는데 택배 하나가
소리를 냈다.
딸랑.



3번 택배였다. 그러자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인 번개배송
배달원 토쇼의 얼굴이 헬멧과 같은 색이 되었다.

서명이 없으면 돌아온 택배는 해 뜰 때 날아서 선반으로 돌아간다. 받는 사람의 서명만 인정된다. 라벨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써야 한다. R.은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 택배들을 보내는 사람이다.



훌리타가 라벨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토..."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다. 훌리타는 말 중간에 입을 다무는 법이 없다. 나는 토뇨를 보았다.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다.

라벨을 반만 읽었다. 나머지 반은 삼켰다. —J.

한꺼번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다. 토뇨는 아니다.
토뇨는 한 군데씩 빨개진다. 적어 두었다.

토뇨의 빨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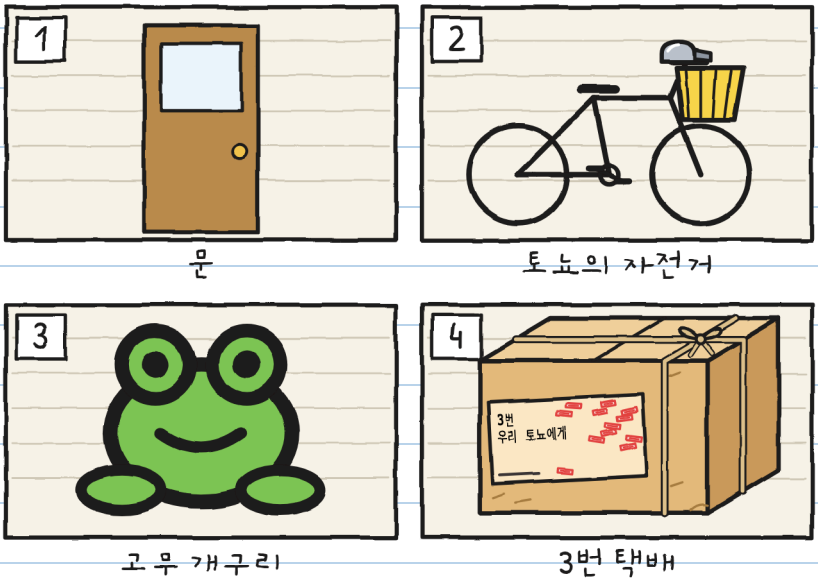
"그 택배는 기다려도 돼요." 토뇨가 아주 빠르게 말했다.
"몇 년째 기다렸잖아요? 하루 더 기다리면 되죠.
열흘이어도요. 번개배송은 안 급해요."
번개배송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들었다.

그날 밤: 4. 나라면 빨간색으로 적을 텐데. 초록색밖에 없어. —J.

"오늘 밤에는 아무것도 열지 않아."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선반은 허락 없이 손대지 마."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딸랑 소리가 또 났다.
딸랑.
"문이 그랬어!" 훌리타가 말했다.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목록을 만든다.

딸랑 소리의 용의자



문 토뇨의 자전거 고무 개구리 3번 택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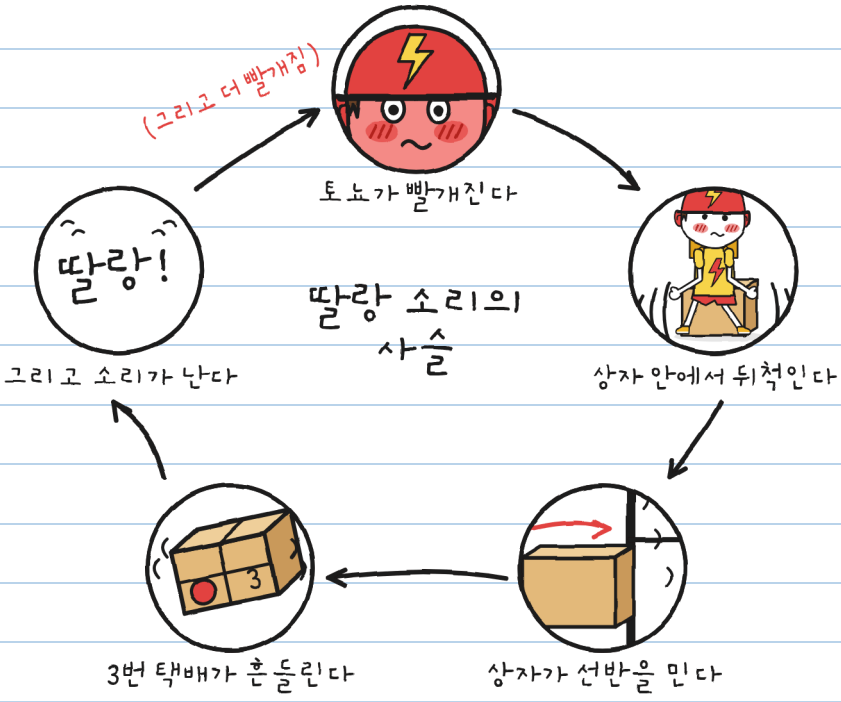
개구리는 무죄야. 내가 잘 알아. —J.

나는 소리를 시험해 보려고 인도로 나갔다. 비는 이미 그쳤다.
문을 열고 닫았다. 끼이익. 토요 자전거의 벨을 울렸다.
따르릉! 개구리를 눌렀다. 삑.



안에서 훌리타가 손가락을 흔들며 아니라고 했다. 어느 것도
같은 소리가 아니었다.
들어갔다. 상자에 앉은 토요가 몸을 뒤척였다.
딸랑.

나는 쭈그려 앉았다. 토쇼의 상자가 선반 다리에 기대어 있었다.



마법이 아니었다. 토쇼였다.
택배를 움직이면 3번 택배 안에서 뭔가가 소리를 낸다.

나처럼 —J.

토쇼는 가만히 있기로 했다. 이만큼 버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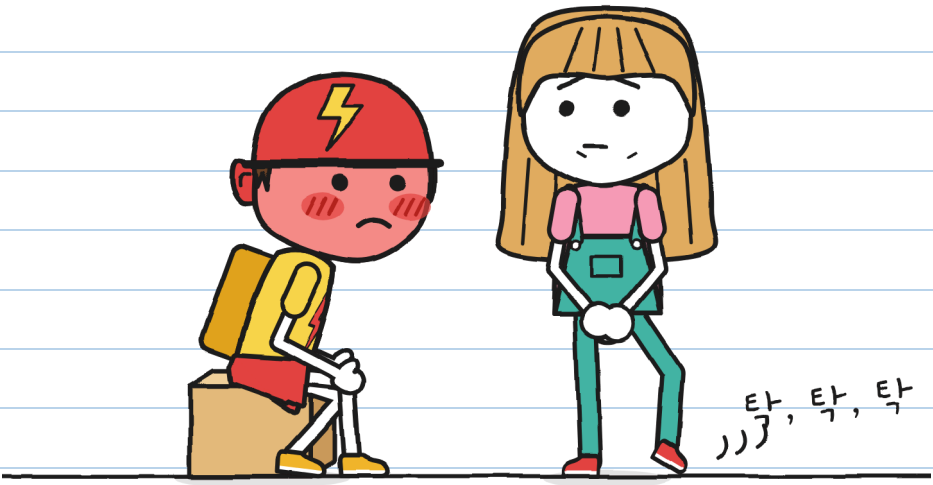


질문일 뿐이야. 질문은 선반을 밀지 않아. —J.

이번 건 밀었다.

"나였어." 토뇨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릴 때."
너무 작은 소리여서 개구리가 나보다 더 잘 들었을 것이다.

훌리타가 입을 열었다. 묻고 싶은 게 아주 많았다.
훌리타는 계속 운동화만 내려다보는 토뇨를 보았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더 안 물어볼게." 훌리타가 말했다.
참느라 힘들었다. 발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안 한 질문: 아홉 개. 다 적어 놨어. —J.

"그런데 왜 한 번도 전해 주지 못했어요?" 내가 마라 아줌마에게 물었다.

"열두 번 가져갔어. 라벨을 봐. 길 이름도 번지수도 성도 없어. 내가 찾아낸 '우리 토뇨'는 전부 찾아가 봤어."

마라의 우리 토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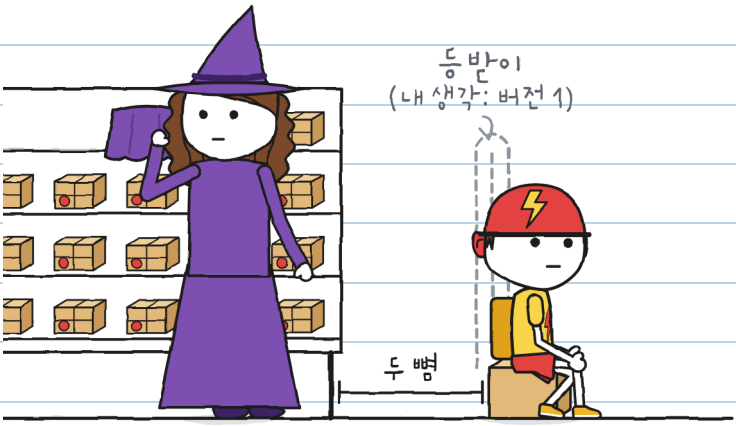


1. 카나리아 한 마리. (라벨을 뱉았다. 안 된다.)
2. 안토니오 할아버지, 커세. ("나도 그러고 싶구나.")
3. 운하의 작은 배. (손이 없다.)

"토뇨는요?" 훌리타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배달하려고 했을 때는 토뇨를 몰랐어." 마라 아줌마가 토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어릴 때 뭐라고 불렸는지 말해 주지 않았거든."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밑에서 보라색 천을 꺼냈다.
앵무새를 재울 때 새장을 덮듯이 3번 택배를 덮었다.
그러고는 토쇼의 상자를 선반에서 두 뼘 떼어 놓았다.
"자. 이제 마음껏 움직여도 돼."



토쇼는 갈 수도 있었다. 자전거가 문 앞에 있었다.
10분이면 동네 반대쪽 끝에 갈 수 있었다.
토쇼는 다시 앉았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적어 둔다. 토쇼의 상자에는 등받이가 없어서 하나 그려 주었다.

아무도 너한테 등받이 그려 달라고 안 했어. —J.

가게 문을 닫을 때, 토쇼는 마지막까지 남아 헬멧 끈을 채우고 있었다.

"마라아줌마, 내일 그 얘기하러 올게요. 우리끼리요."

"이 둘은 가게 식구야."

토쇼가 우리를 쳐다보았다.

"이 둘은 괜찮아요. 하지만 번개배송 사람은 안 돼요."



딸랑 소리의 주인은 이제 알았다. 토쇼였다. 토쇼가 이 택배를 원하는지는 아직 몰랐다.

토쇼를 어떻게 도울지 난 알아. —J.

그게 걱정이다.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그리고 2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달라진다.

사이즈 XXS · PRE-A1
마라와 토뇨가 웃어. 빨간 자전거가 보여?

사이즈 XS · A1
마라 아줌마가 거의 웃었다. 토뇨도 같이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웃는 걸 못 봤다.

사이즈 S · A2
마라 아줌마가 소리를 냈다. 거의 웃음이었다. 토뇨도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웃는 걸 못 봤다.

사이즈 M · B1
마라 아줌마가 소리를 냈다. 웃음 같았다. 토뇨도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토뇨가 웃는 걸 못 봤다.

사이즈 L · B2
마라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웃음이었을 소리를 냈다. 토뇨도 웃었다. 토요일 이후로 토뇨가 웃는 건 처음 보았다.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 사이즈로 같은 딸랑.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